

# 전북대, 학·연 협력모델 구축 본격

### 식품연구원과 첫 공동 학술포럼 개최... 3개 지역산업 관련 공동연구 과제 발표 글로벌대학 30 실행 목표 따라 전북테크노파크·농진청 등과 공동융합연구 확장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14일 오후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형희)과 첫 번째 공동 학술포럼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혁신융합 공동캠퍼스 구축과 학·연 협력 및 공동연구를 위해 지난해 5월 협약을 체결한 이후 이번 포럼을 통해 본격적으로 선도적인 학·연 협력 모델 구축에 나선 것. 이날 학술포럼에서는 양 기관 소개

와 함께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주요 사항과 전북대와 한국식품연구원 간 3개의 공동연구팀이 혁신융합 과제를 발표하고, 오택립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산업국장이 '전북특별자치도 생명산업 범위와 산업 육성 전략'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펼쳤다.

전북대-식품원 간 글로벌대학 혁신융합 과제 발표에서는 임수만 전북대 유연인쇄전자전통대학원 교수가 '과

채류의 과잉 케르세틴에 의한 건강 이상 예방을 위한 현상형 검출 센서 개발' 과제를, 한국식품연구원 최영민 연구원이 '푸드테크 기술 확산을 위한 원시 식품 데이터의 이미지 변환 기반 딥러닝 기술 개발'을, 이상희 연구원이 '노인의 근감소증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BCAA(분자아미노산)이 근위축 관련 mRNA 발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골다공증으로 인한

Sarcopenia 개선 효과 연구'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특히,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전북대는 글로벌대학30 실행 목표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기점으로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농촌진흥청 등 지역 주요 연구기관과 공동융합연구를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기 목표로 공동연구 성과물의 기술 사업화와 지역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의 선순환을 이뤄내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포럼은 대학과 지역의 핵심 연구기관이 융합 공동연구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자리이자 지역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혁신융합 공동캠퍼스 구축 사업의 첫발을 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대학과 연구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잘 수행해 우리 지역이 새롭게 비상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는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대학과 연구기관 간 '혁신융합 공동캠퍼스'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특화 분야별 공동연구에 나선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가 지난 14일 오후 한국식품연구원과 첫 번째 공동 학술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양오봉 전북대 총장, 백형희 식품연구원장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 돕는다

### 전북자치도교육청, 학교 영양상담 진단시스템 활용 방안 연구 영양상담 프로그램 안내... 진단시스템 구축, 워크북 제작·배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15일 창조나래 시청각실과 전주효천초에서 '2024년 학교 영양상담 진단시스템 활용 방안 연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영양상담 진단시스템 개발자로부터 어린이 식생활 평가도구(DST, DBT)에 대한 전문 강의와 부산영양교육체현관 장학사의 영양상담 운영사례 발표 및 컨설팅으로 진행됐다.

특히, 학교 영양상담 진단시스템 활용방안 및 사례별 컨설팅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 형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전주효천초에서 진행된 심화연구는 영양상담전문가과정 이수교사 및 상담 경험교사 20명 대상으로, 또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진행된 일반연구

는 단설유치원 및 국·공·사립학교 영양(교)사 중 희망자 1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학교 영양상담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상담 매뉴얼 제작, 진단시스템 구축, 워크북 배부 등 학교 영양상담의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전문인력 양성과 상담매뉴얼 제작이다.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영양상담 전문가과정 연구를 실시, 어린이 식생활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 또 전북영양상담연구회(JBNC) 회원들을 중심으로 영양상담매뉴얼 및 사례집을 제작 배부했다.

다음으로, 영양상담 시스템 구축이다. 2023년 9월 전북교육청 영양상담

진단시스템을 구축해 비대면으로 식생활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생들의 식생활 문제를 분석하고, 근거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체계적인 영양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마지막으로, 영양상담 워크북 제작이다. 초등학교생용 '숨은키 10cm를 찾아라', 중등학생용 '숨은 몸장, 숨은장! 비법을 찾아라' 워크북을 제작·배부했다.

특히 키, 몸무게, 생활습관 등 자신의 현재 상태를 기록하고 한 달간 '4가지 키 키 미션(채식·일찍자기·단음식 줄이기·운동하기)'을 실천해 몸의 변화를 확인,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영양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학교 영양상담 진단시스템은 지난해 희망하는 학교에 구축했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학교에서의 맞춤형 영양상담이 이뤄질 수 있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신규 임용 예정교사 자질·역량 함양

### 전북자치도교육청 교육연수원, '2024년 맞춤형 연수' 4·7월 교과별 소그룹 멘토링·교직 실무역량 강화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문병기)은 신규교사들의 교직 현장 적응을 돕고, 교사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2024년 신규 임용 예정교사 맞춤형 연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초등 51명, 중등 공립 360명, 사립 94명 등 총 505명을 대상

으로 진행된다. 초등 신규 임용 예정교사는 22일까지, 중등 신규 임용 예정교사는 26일까지 연수가 이어진다.

특히 이번 연수에 사립학교 교사 94명도 대상자에 포함됐다.

연수 내용은 △2022개정교육과정의 이해 △에듀테크와 학생중심 수업 사례 △학생 생활교육 및 위기 학생 지

원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교권의 이해 등이다.

한편 임용 후에는 수석교사를 포함한 113명의 선배교사들이 교과별 소그룹 멘토링(총 32과목, 초등 9과목, 중등 104과목)과, 14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교직 실무역량을 신장할 지원하는 2과목의 연수가 4월부터 7월까지 각 10시간에 걸쳐 이뤄진다.

문병기 원장은 "신규교사들이 다양한 연수 과정을 통해 교직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선배 교사의 경험과 조화를 이뤄 더 특별한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열어가는 주체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오늘 고3 예비 담임교사 진학지도 역량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6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고3 예비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진학지도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교육청 대입 담당 장학사가 올해 맞춤형 진학지도 계획을 설명한 후, 대입 전문가인 경기 오산고등학교 박정준 교사가 2025학년도 대입전형 특징과 진학지도 방법에 대해 강의를 펼쳤다.

이번 연수를 통해 전북교육청은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대입제도와 전형의 핵심 내용을 진학 교사에게 안내해 지역별 수험생의 지원 상황을 고려한 대입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와 맞물려 입시를 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만큼, 입시 동향을 진학 교사들이 먼저 알고 진학지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연수는 보다 많은 교사들

의 참석을 위해 동일한 강의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한다. 모든 강의는 동영상 촬영 후 전북교육청 유튜브에 탑재된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전북 지역은 시군별로 학생들의 대입 진학 성향이 조금씩 다르다"면서 "지역 학생들에게 대입정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다양한 교사 연수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현안 책임질 수 있는 현장전문가' 박노준 신임 우석대 총장 선임

### 임기는 내달 1일부터 4년간

신임 우석대학교 총장에 박노준(61·사진) 안양대 총장이 선임됐다.



학교법인(이사장 서창훈)에 따르면 15일 이사회를 열고 우석대학교 제15대 총장에 박노준 안양대 총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4년 3월 1일부터 4년간이다.

신임 박 총장은 고려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성균관대와 호서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2007년 서울과학기술대를 시작으로 호서대에서 후학을 양성

해 왔다. 2011년 우석대학교 교수로 임용됐으며, 2020년에는 안양대 제11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한편 원조 야구스타이기도 한 박노준 총장은 1986년부터 1997년까지 OB베어스·쌍방울·해태에서 프로야구선수로 활동했다. 은퇴 후 미국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뉴욕 메츠에서 코치로 활동했으며, 야구선수로는 최초로 우리 히어로즈 단장과 부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학교법인 우석학원 이사회는 박노준 총장에 대해 "우석대학교를 명문대학으로 이끌 리더십과 비전을 갖췄으며, 산적인 현안을 책임질 수 있는 현장전문가"라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장은성 기자



15일 전주평화회의장에서 '전북형 늘봄 집중지원학교' 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전북형 늘봄 지원학교 운영방안 안내

### 전북자치도교육청, 75개교 학교장 등 대상 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서거석 교육감, 이하 전북교육청)은 15일 전주평화회의장에서 '전북형 늘봄 집중지원학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늘봄 집중지원학교 75개교 학교장과 14개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북교육청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 해소 등을 위해 1학기 75개교를 시작으로 2학기에는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

봄은 하나의 체제로 통합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성장 발달 단계와 학부모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2개 무료 프로그램) 제공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한시적 기간제 채용(20명) 및 방과후행정실무사(55명) 업무지원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교실 환경개선 지원 사업 등을 안내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형 늘봄학교는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연계해 교사와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안전적인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2024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설명회

### 전북자치도교육청, 업무담당자 대상... 교육활동 관리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5일 전주교육문화회관에서 '2024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학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초·중·고 및 특수학교 업무담당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사 배치·교육활동 관리·기자재 지원 및 관리 방법 등을 안내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교육부와 문체부의 공동협력사업으로 국·공·민·영·무·민·민·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사진 등 8개 분야에 대해 학교별 예술교육 수요를 반영해 예술강사를 배치함으로써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인성, 창의성을 키워주는 사업이다.

이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학생들의 예술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해 실력과 바른



15일 전주교육문화회관에서 '2024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학교 사업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인성을 갖춘 인재로 키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